

여름 (여름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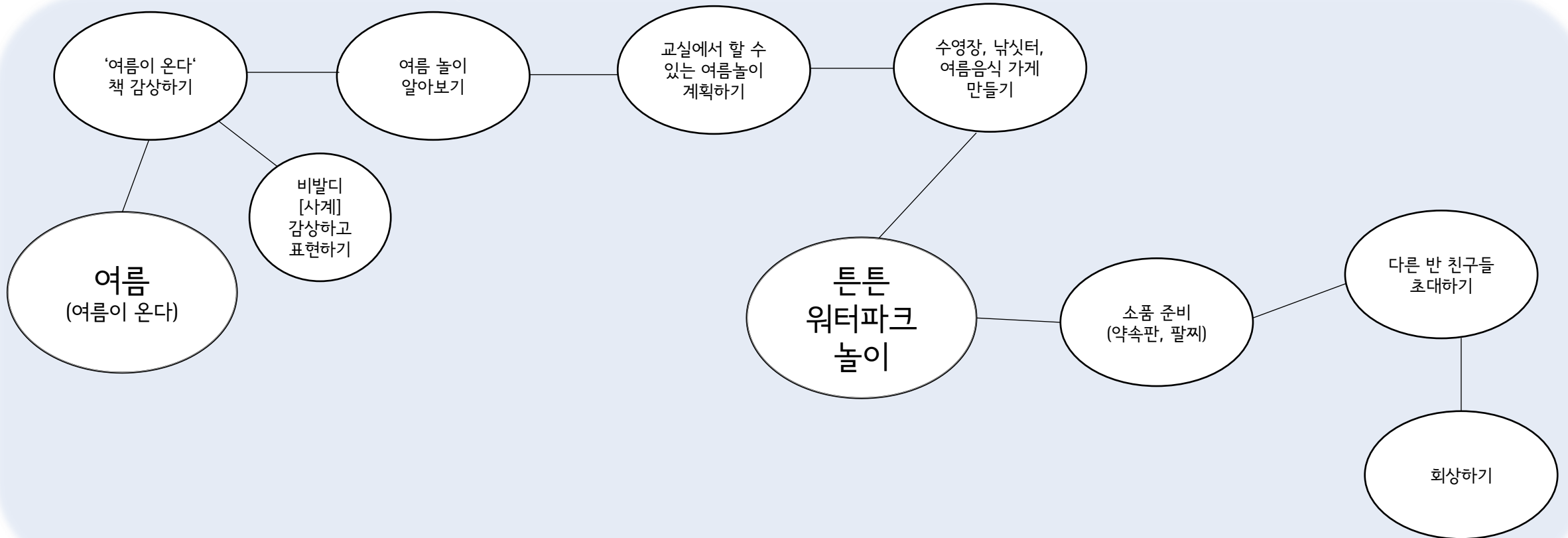


2022.8.15~2022.9.2
마음튼튼 1반 친구들의 즐거운 놀이

‘여름’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여름방학을 보내고 온 유아들과 ‘여름방학책’을 소개하며 지나가는 여름을 아쉬워하여 <여름이 온다> 책을 감상하였고, 아직 남은 여름을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여름 놀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여름 놀이를 계획하고 다양한 공간(수영장, 낚싯터, 음식점)을 구성하여 워터파크를 개장해 놀이하고 약속판과 입장 팔찌 등을 만들어 다른 반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하며 워터파크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8.15.~ 9.22.)



즐거운 여름



<여름 생각 모으기>

▲ 무더운 여름 날씨~

여름방학이 시작 되기 전에 여름 날씨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며 <생각 모으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즐거운 여름 캠프 활동(워터슬라이드, 미꾸라지 잡기, 여름 모자 꾸미기)▶
을 하며 신나는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며
가족들과도 소중한 추억을 보내고 오기로 하였습니다.



즐거웠던 여름방학~!



▲여름방학을 보내고 온 친구들과 여름방학책을 통해 나의 여름 이야기를 소개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여름 놀이를 하고 온 친구들과 여러가지 경험을 나누며 여름 놀이에 관심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보내고 왔지만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여름을 찾아보며 '감나무 잎이 아직 초록색이에요~', '매미 소리가 아직 들려요.' 라고 이야기 하는 등 시원한 물놀이도 즐겼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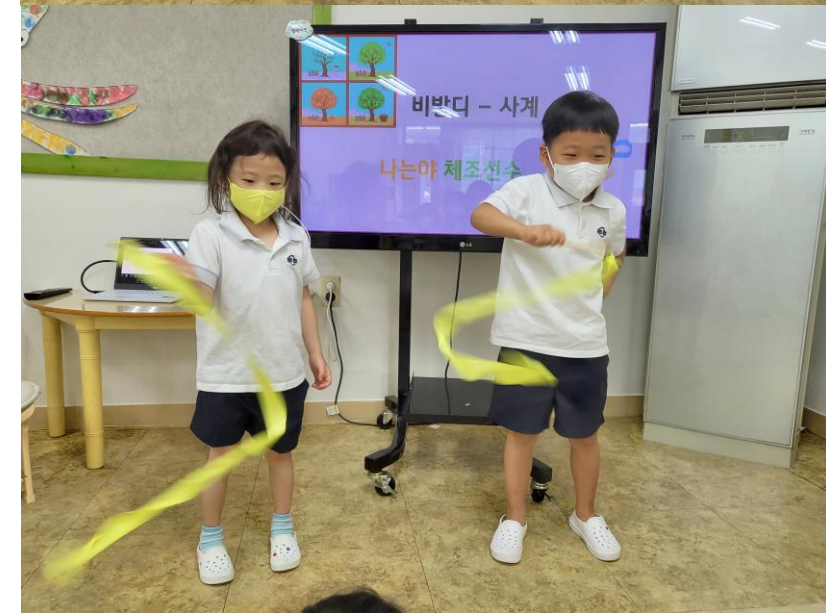
아쉬운 여름(여름이 간다)

“여름이 지나가는 것이 아쉬워요.”

여름방학을 보내고 왔지만 아직 더운 날씨로 인해 여름이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한 마음튼튼 1반 친구들과 [여름이 온다]라는 책을 함께 감상하며 [여름이 간다]라고 재구성해보기로 하였고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여름놀이를 더 해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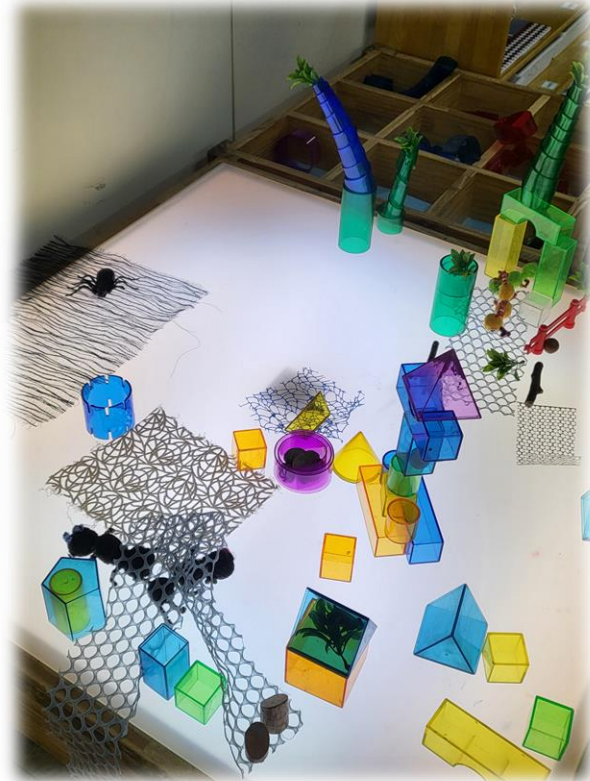


◀ [여름이 온다] 책의 한 장면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친구들은 노란색, 주황색을 보고 ‘더운 여름 같아요.’
‘태양빛이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해서 신나는 나의 표정을 꾸며보았습니다.



▲ 비발디의 <사계-여름>과 함께 [여름이 온다] 책을 감상하며 여름 날씨의 특징과 노래를 리본으로 표현합니다.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여름놀이



▲수영장 놀이를 하고 싶다고 하던 친구들은 처음에는 레고 블록으로 수영장을 만들며 놀이해봤어요. 파란색 레고블록으로 수영장의 물을 표현해주고 쉬는 공간 밥 먹는 공간 등 공간을 분리하여 구성해주었습니다.

라이트테이블의 개미 인형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 아크릴 블록을 이용해 워터파크의 놀이기구를 표현해주고 다양한 천을 이용해 물길을 표현하여 개미인형이 물놀이를 하는 놀이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타고 싶어요!



“책상의 변신~”

수영장을 만들어 놀이하던 친구들은 우리가 직접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싶다고 하여 유치원에서 미끄럼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 책상으로 미끄럼틀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수영장 틀을 만든 후 파란색 블록으로 물을 표현해주고 책상 다리를 빼서 경사를 만들어주었더니 우리가 직접 탈 수 있는 슬라이드가 되었습니다.



워터파크 놀이를 해요!



“구명조끼 입으신 분만 슬라이드 탈 수 있습니다.”

“물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나가주세요.”

“물놀이 하신 분은 휴식도 해주세요.”



“신나는 워터파크 놀이~!”

워터슬라이드를 직접 타고 싶다고 했던 친구들은 워터파크의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 놀이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워터파크에 가봤던 경험을

되살리며 다양한 역할을 정해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해봤고

재밌었던 친구들은 다른 반 친구들도

초대하여 놀이하기로 하였습니다.

워터파크 놀이를 해요!



“낚시터에 상품도 있으며 좋겠어요.”

“이걸 치면 음식 나왔다는거예요.”



“식당에 불을 밝혀주는
조명을 만들어요.”



“팔찌에 바코드 보여주세요.”

“다 먹은 그릇은 설거지해야해요.”



워터파크에 초대해요!



“여름 워터파크 놀이를 하며~”

맘맘~ 매미소리가 들리는 무더운 여름~

마음튼튼 1반 친구들은 여름 캠프 때 워터 슬라이드와 여름 방학 중 가족들과의 물놀이를 떠올리며 지나가는 여름을 아쉬워 하였고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여름 놀이에 대해 알아보고 계획하여 워터파크의 다양한 공간(슬라이드, 음식점, 휴게소, 낚시터)을 만들어보았습니다. 평소에 식사를 하고 그림을 그리던 책상의 재발견으로 인해 독창적인 놀이가 시작될 수 있었고 교실에서도 미끄럼틀을 타 보는 경험을 통해 주변의 사물을 새롭게 발견할 수 시야가 넓어졌고 친구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 사회관계가 더욱 더 형성 될 수 있었습니다.